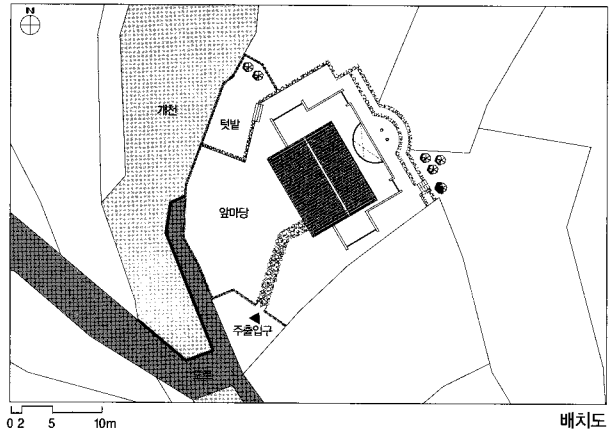


청희당(淸喜堂)

Cheonghuidang

문철수 / 정회원, 두양건축사사무소
by Moon, Chul-soo, KIRA

대지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141, 142번지	규모	지상 1층
지역/지구	동림지역, 농림보호구역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용도	가족기념관 주택	외부 마감	노출콘크리트
대지면적	621.0㎡	내부 마감	석고보르 외 지정벽지
건축면적	154.55㎡	구조설계	두양건축사사무소
연면적	141.58㎡	전기·설비	진일설비연구소
건폐율	24.89%	시공사	(주)두양종합건설
용적률	22.80%	설계담당	김민지



배치도

청희당(淸喜堂) 궁극의 공간

이 건축 공간이 생겨나기까지 건축주는 무척이나 오랫동안 기다렸다. 당신이 태어난 곳, 그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았던 곳, 그리고 본인이 세상을 떠난 후 영원히 머물고 싶은 터 위에 그때의 시간들을 새기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지리산에서 뿔어 나온 낙남(落南)정맥은 이 집의 주산(主山)인 이명산에서 남해 바다를 바라보며 머물고, 북쪽으로 뿔은 두 능선 사이의 골짜기에 마을이 있었다.

북천(北川)이라는 마을 이름처럼 북쪽 동구(洞口)를 향하는 마을 좌향(坐向)은, 이 집을 다른 여느 경우처럼 남쪽으로 트인 조망을 가질 수 없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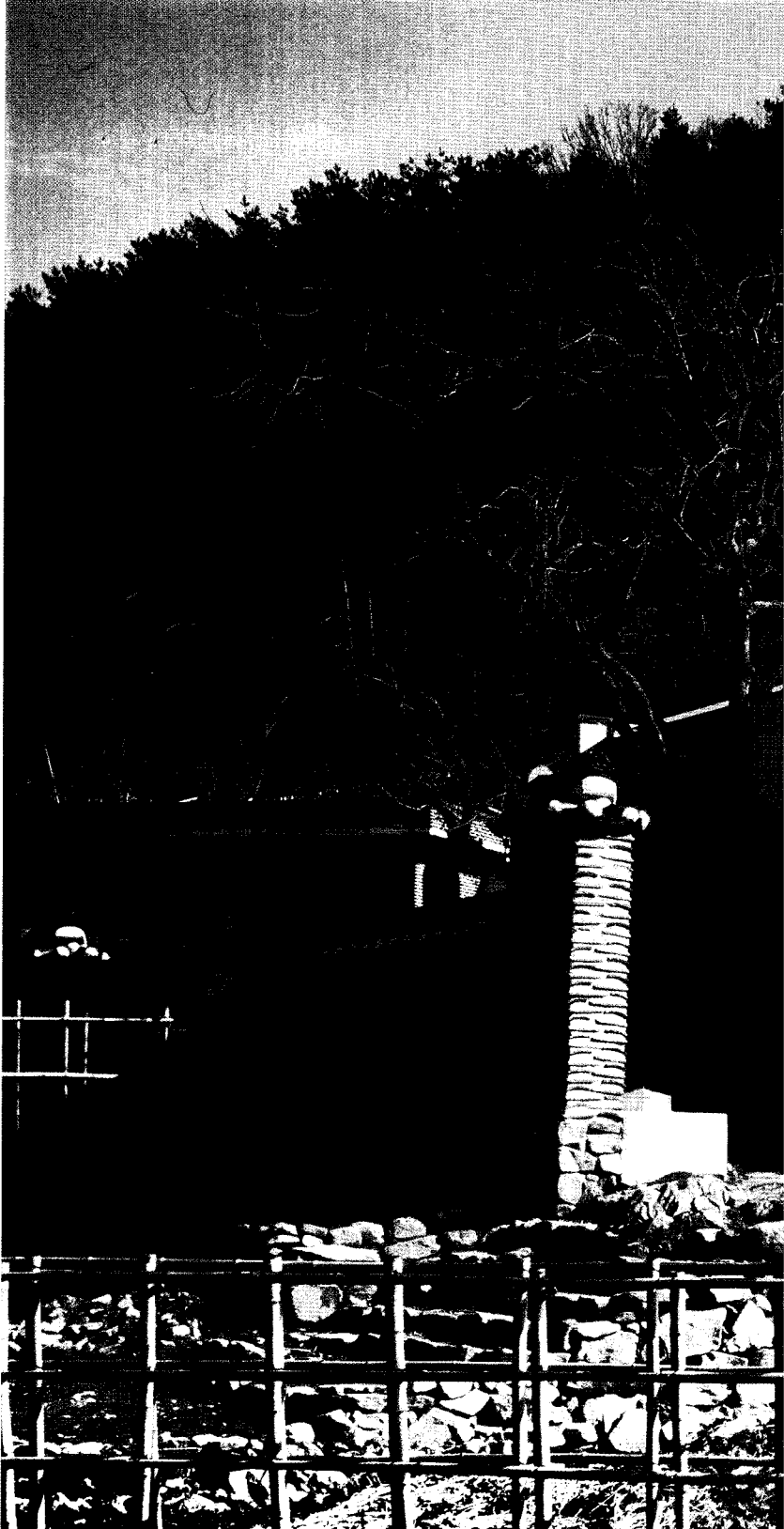
주산(主山)에서 우백호(右白虎)의 능선 끝자락에 위치한 대지 조건 때문에, 저수지 위, 작은 개천을 끼고 좌청룡(左靑龍) 너머로 향하는 서남서 좌향을 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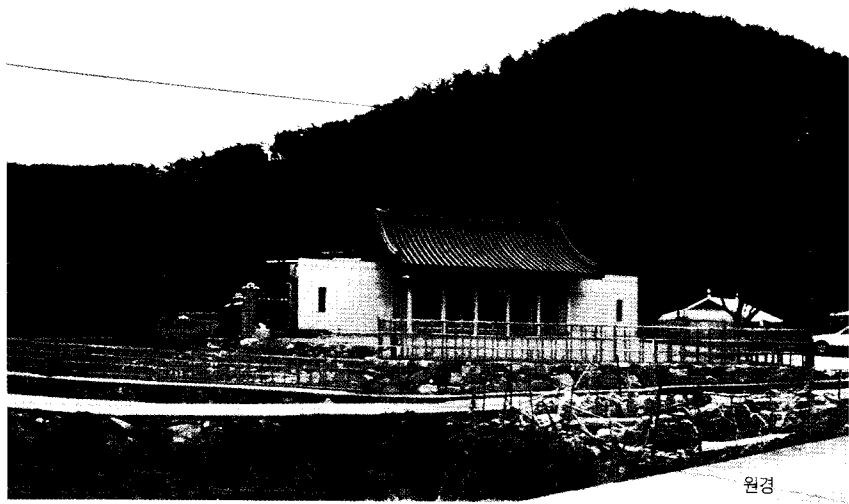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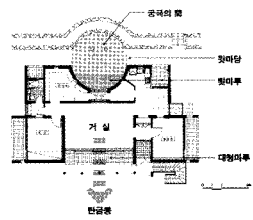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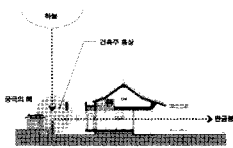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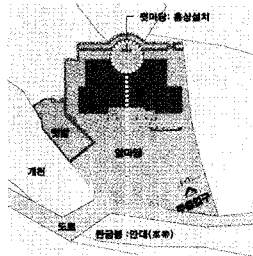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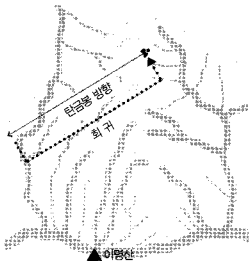
좁은 들판 바로 건너에 있는 능선은 답답한 느낌을 주었다. 조금이라도 시야가 트인 곳을 찾아야 했다. 물결치는 듯 오르락내리락하는 산마루 선 가운데 주산에서 흘러내려 인접 봉우리로 이어지기 전의 골짜기 선이 눈에 들어 왔다. 그 너머의 봉우리도 보였다.

그 봉우리의 이름이 탄금봉(彈琴峰)이라 했다. 참 멋진 이름이다. 이런 궁벽한 농촌 골짜기 너머에 그런 고상한 이름을 가진 봉우리가 있으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더욱 빛났다. 탄금봉의 형세도 봉우리가 아담해서 문필봉에 가까워 안대(案帶)로 삼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로써 건물의 주 좌향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대나무 밭을 접하고 있었던 서남 방향의 원래 좌향에 비해 서남서로 조정된 방향은 건물 뒷공간이 허전해질 수밖에 없었다. 뒷마당을 만들기로 했다. 어차피 주택만의 용도가 아니라 기념관의 성격을 지녀야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가족 내부의 이야기는 감추어진 뒷마당에 담는 것이 니을 것이라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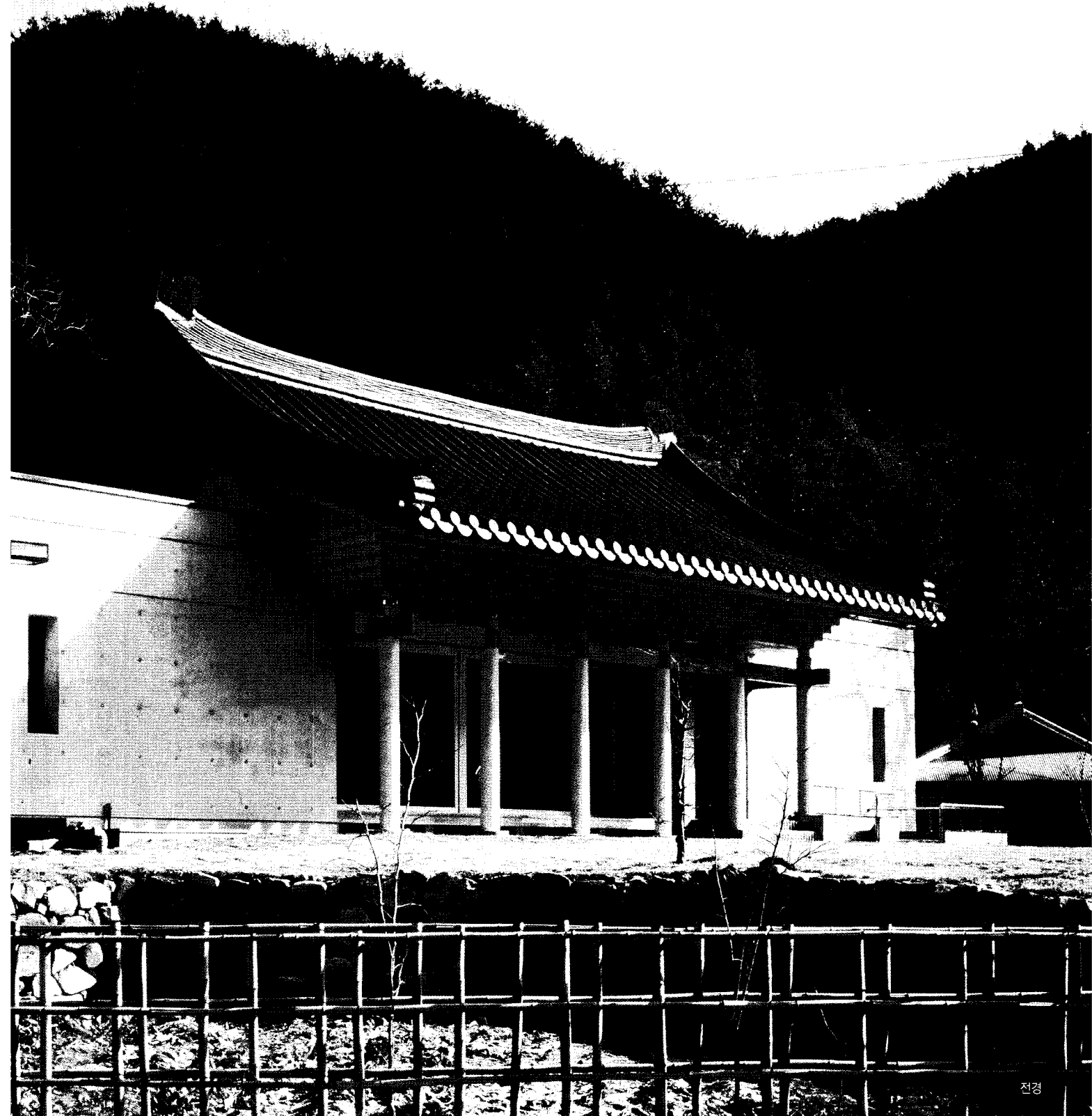
허전해진 뒷마당 주변을 튼튼하고 아담한 한식 담장으로 둘러, 일상의 접근을 차단하고 가족들만의 이야기가 담긴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주택의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사당(家廟)을 두었듯이, 이 집도 현대적으로 번역된 신성공간을 구축하였다. 이 마당의 이름을 '궁





원경



진경

극의 間(사이)'이라 이름 지었다.

신성 공간의 중심에 이집의 주인 내외의 흉상(胸像)을 세우기로 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눈 깜짝할 사이를 살다 다시 영원의 안식처로 돌아가야 하는 인간의 숙명. 후손의 영혼으로 영속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가 가진 소망일 것이다.

'궁극의 間'은 하늘을 향해 뿔려있는 빈 공간이 좋을 것이다.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 이 마당에 머무르고, 흉상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향한다. 건물의 내부에는 자손들이 산다. 먼 훗날 영혼이 되어 다시 내려올 그 존재는 그 속에서 자손들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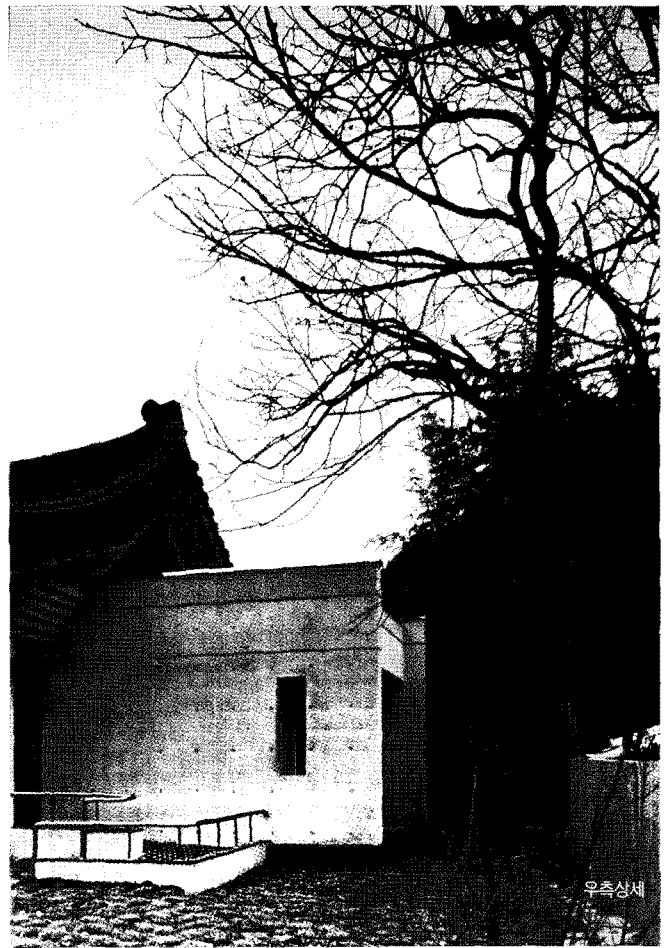
그리고 다시 멀리 마주 보이는 하늘 향해 솟은 안테나, 탄금봉을 향한다.

다시 하늘로 귀의 한다. 이제 소우주의 질서가 완성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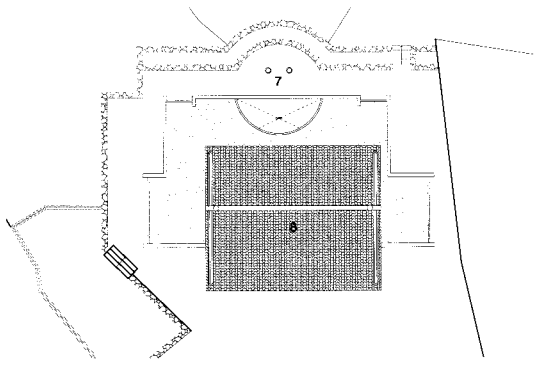
착공을 하고 공사가 진행되었다. 건축주는 무척 기뻐하였다. 평생 원하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하루 건축주의 생신 날, 건물만 덩그러니 완성된 상태에서 동네 주민들과 어울려 소박한 잔치를 열었고, 주민들은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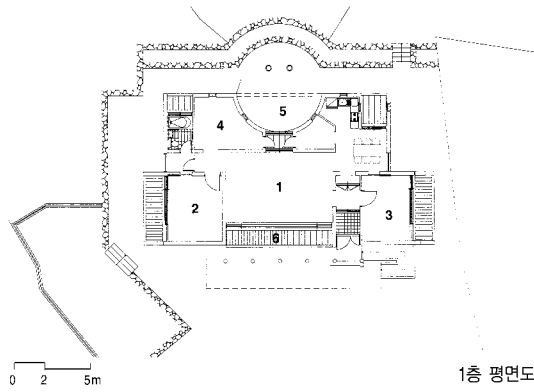
2009년 7월 1일 청희당이 완성되었다. 7월 15일 이 집의 건축주는 하늘나라로 돌아갔다. <글_문철수>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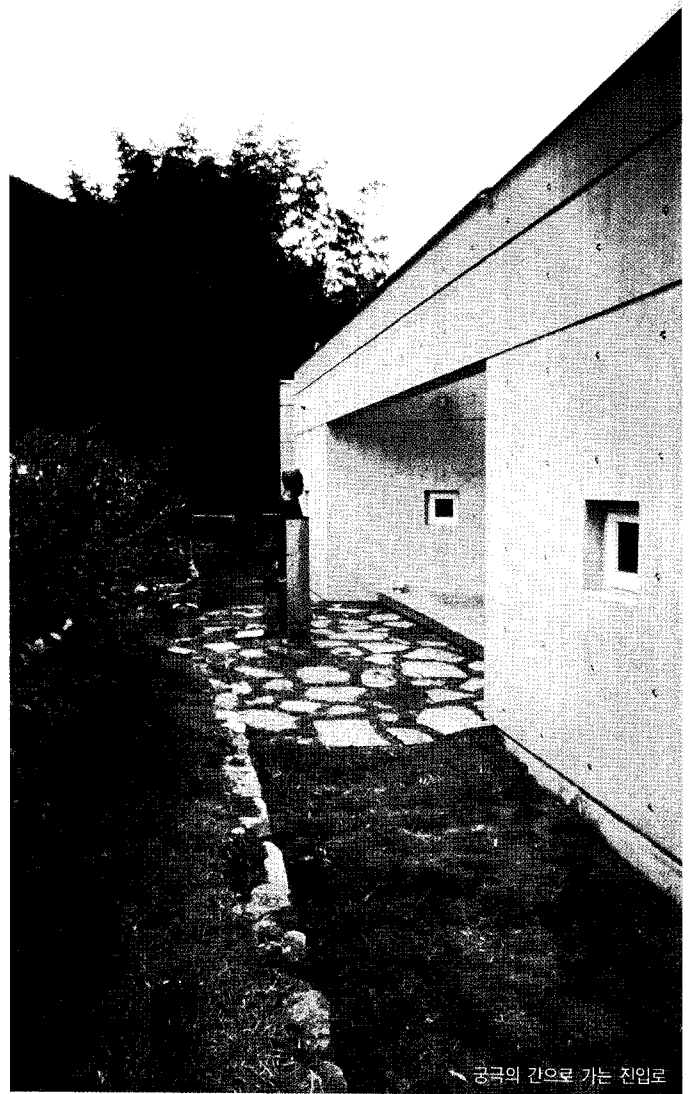
- 01_ 거실 05_ 뒷마루
- 02_ 침실 06_ 대청마루
- 03_ 황토방 07_ 뒷마당
- 04_ 전시실 08_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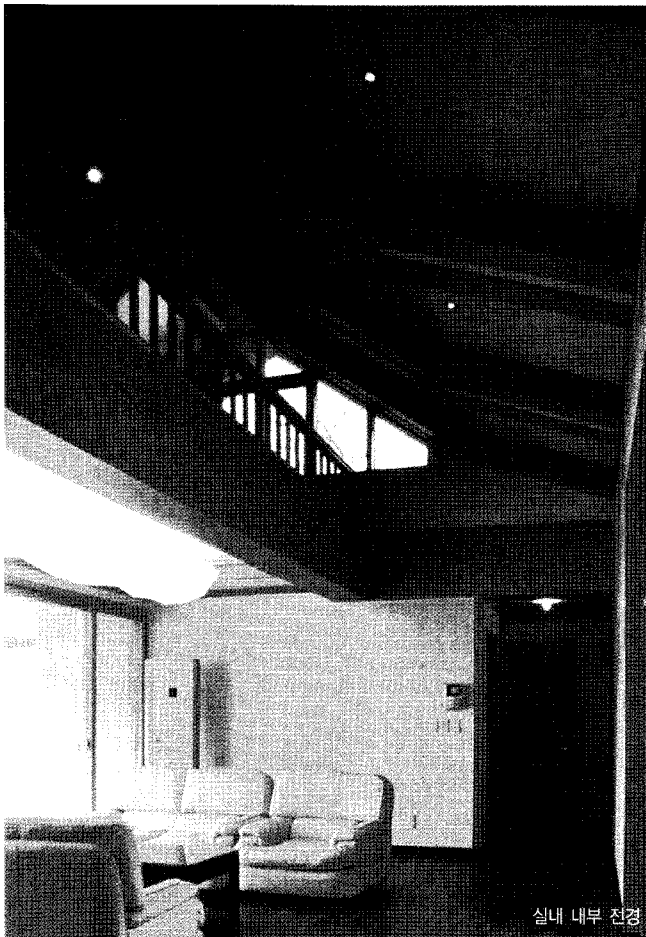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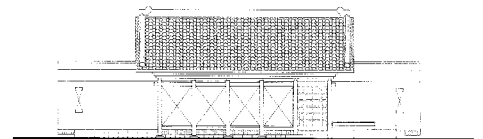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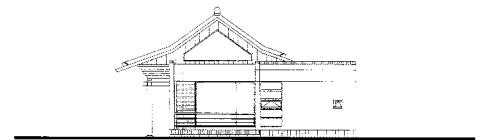
궁극의 간으로 가는 진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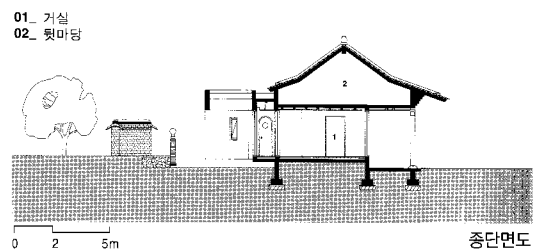
실내 내부 전경



정면도



우측면도



종단면도